

##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미적 상상력과 낭만성\*

- 봉래 양사언의 「미인별곡」 연구

윤지아\*\*

### <차례>

1. 들어가며
2. 楊士彦의 삶과 문학적 경향
3. 楊士彦의 〈美人別曲〉 분석
4. 나가며

### <국문초록>

봉래 양사언은 16~17세기 문학·예술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문인으로, 당대 문학사에 그가 남긴 자취는 후대에도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본고에서는 양사언의 문학사적 위치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본격적인 작품론이 없었던 국문가사 <미인별곡>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작품론을 시도하였다.

양사언의 생애는 자세하지 않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그의 행적과 이를 둘러싼 기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였으며, 금강산과 포천의 금수정을 중심으로 한 유람 행적으로 당대의 문인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또한 그의 출신에 대한 설화가 널리 퍼져 있어, 양사언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분의 모호함은 그의 비범한 예술가적 자질과 금강산, 금수정 등 명승에서의 행보, 유선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 세계 등과 맞물려 양사언이 수많은 문인으로부터 ‘지상에 내려온 신선’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1062)

이 논문은 2024년 5월 18일에서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전남대학교 윤병용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 연구원

이라는 찬사와 함께 유명세를 얻었던 데에 일정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언의 한시 작품은 16·17세기 한시의 투영하면서도, 유선적이고 낭만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당시풍을 따르는 가운데 초속적인 세계관이 강조되면서도, 그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감각적인 어휘로 담고 있어 특유의 낭만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국문시가 <미인별곡> 및 <미인곡>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양사언의 문학적 경향과 교유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인별곡>을 한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찬사로 이해했던 종래의 해석은 정정의 여지가 있다. 작품 곳곳에 불쑥 등장하는 은일 고사들과,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묘사라고 하기에는 혼종적인 측면이 있는 여러 수식 등은 작품의 의미 지향을 달리 이해할 단서가 된다. 결국 이 작품은 포천 은일 시절의 감회와 신선 취향 등을 당시풍의 낭만적인 표현을 빌려 그려낸 것으로, 그다지 순탄치 않은 자신의 상황을 투영함과 동시에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그리며, 또는 서러운 사연을 가진 묵객과 미인들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창작한 작품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정철의 작품보다 앞선 작품 중에 시적 형상으로 미인의 용례를 확장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미인별곡>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봉래와 송강의 문학적 기질, 즉 지상과 천상의 경계를 흐리는 모호함으로부터 비롯된 초월성과 낭만성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봉래 양사언은 강호가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조선 전기 사대부 국문시가에 또 다른 국면을 예비하고 있었던 작가로서, 정철과 그 이전 시기의 작가들을 잇는 위치에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미인별곡>, 봉래 양사언, 조선 전기 가사, 사대부 가사, 미인 형상

## 1. 들어가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흠로다~’ 라는 유명한 시조의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은 16세기에서 17세

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문학, 예술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문인이다. ‘지상으로 내려온 신선’, ‘선풍도골(仙風道骨)’ 등 그와 교류했거나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언급은 봉래 사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시(詩)·서(書)를 아우르는 예술사의 영역에서도 그가 끼친 영향은 다대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후대 문인들의 추앙을 받았던 양사언임을 상기할 때, 문학사, 역사 곳곳에 남아 있는 그의 자취에 비해, 정작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 하겠다. 특히 본고에서 다룬 국문 가사 <미인별곡(美人別曲)>은 작품 소개 및 해제를 겸한 개략적인 논의 외에 본격적인 작품론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 작품은 김동욱<sup>1)</sup>이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후, 작품론으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양사언의 생애와 문학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두 차례 간략히 해설되었을 뿐이다.<sup>2)</sup> 이 때문에 이 작품은 아직 분류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 논의에서 이 작품을 애정가사의 최초작으로 명명한 적이 있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sup>3)</sup>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본 작품은, 내용상 한 여성을 아름다움을 다양한 양태로 그려내고 있어,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애정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대부 가사와는 다른, 개성적인 양상을 띠는 작품으로 이해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미인별곡>과 거의 동시기 후대에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과 비교하였을 때, “그 직유양식(直喻樣式)이 너무나 일률적이어

1) 김동욱, 「허강의 「西湖別曲」과 楊士彦의 「美人別曲」, 『韓國歌謠의 研究 續』, 선명문화사, 1975.

2) 박영주, 「지상에 머문 신선, 봉래 양사언」, 『오늘의 가사문학』 7, 고요아침, 2015, 57~72쪽.

3) 김팔남, 「연정가사의 형성시기와 작자층」, 『어문연구』 제30집, 어문연구학회, 1998, 139~155쪽.

서 변화가 없고 송강의 기복(起伏)이 있는 결구(結構)에는 멀리 미치지 못한다”<sup>4)</sup>는 평가를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송호(松湖) 허강(許樞)의 <서호별곡(西湖別曲)>과 같은 서지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시가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강호가사, 즉 사대부 가사의 전통적인 측면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끝이어 출현하는 정철의 양미인곡과 ‘미인’이라는 시적 소재 및 표현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자료적으로도 여러모로 재검의 여지가 있다. 일단 제목 <미인별곡>부터가 작품의 최초 소개자인 김동욱에 의해 가제로 정해진 것이고, 작가 문제 또한 양사언 자필 첩책에 수록되어 있고 필적이 양사언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큰 검증 없이 정해진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에 반론할 추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양사언의 작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달리 도리가 없는 형편이나, 향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 작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은 우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봉래의 동생인 양사준의 작품으로 알려진 <남정가(南征歌)>와 같은 국문가사 또한 처음에는 양사언의 작품으로 연구되었기에, 여러모로 양씨 형제들의 문학 활동의 세부적인 경위나 내력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조선 전기 시가 문학사의 연구가 여러모로 담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여겨지는데, 새로운 작품의 해설을 통해 당대 시가사의 단면을 조명해 보는 일은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이다.<sup>5)</sup>

이에 본고에서는 봉래 양사언의 <미인별곡>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심화된 작품 이해로 나아간 후, 그 문학사

4) 김동욱(1975), 앞의 책, 213쪽.

5) 성호경, 「조선 전기 문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 『고전문학연구』 61, 한국고전문학회, 2022, 7~35쪽.

적 위치를 재점검 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양사언의 자필 첩첩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고는 해당 원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양사언의 삶과 문학적 경향

### 2.1. 양사언의 행적

양사언의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 해객(海客)이며 그의 가계는 원나라 성종 대에 고려에 들어와 귀화한 성씨인 청주 양씨이다. 고려 정착 이후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하였던 청주 양씨는, 조선조에 들어 양사언의 고조인 양진(楊震)이 조선 개국공신에 봉해지고 공조 전서를 역임하면서 더욱 입지를 굳혔다. 양진이 황희(1363~1452)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냄으로써,<sup>6)</sup> 양씨 가문은 당시 세도가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던 듯하다. 이후 양사언의 증조부인 양치(楊治, 1400~1485)는 무관으로서 벼슬이 종2품 병마절도사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황희가 처남인 양치의 장물죄를 무마하려 했던 정황,<sup>7)</sup> 그리고 장물죄에도 불구하고 서용되기

6) “황고(皇考)의 휘는 희(喜)로, (...) 비(妣)는 청주 양씨(淸州楊氏)로, 공조 전서(工曹典書) 양진(楊震)의 따님이다.” 李承召, <朝鮮推忠佐翊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南原府院君. 烈成公墓碑銘. 并序. 烈成卽黃守身>, 『三灘集』 13, 「碑碣」.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이하 한국고전종합DB 자료는 출처 표기 생략.)

7) “(...)또 양치는 일찍이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로 있을 때, 마음대로 창고를 열고 미곡 50석을 사용하였사옵고, 그 아내가 서울로 가는데 행량(行糧)이라 칭하고는 16석을 가지고 가게 하는 등 기타의 장물도 이에 상당하옵고, 또 본 고을의 실전(實田) 16결을 은루(隱漏)하였으며, 범한 것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불가불 입건하여야 하겠사운데, (...)” 『세종실록』 21년(1439) 10월 27일, 「전라도 지역에 추곡할 일로 행대 파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

“처(妻)의 형제(兄弟)인 양수(楊修)와 양치(楊治)의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황

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양치의 행장에 따르면, 그는 계유정난에 비분강개하여 그 즉시 벼슬을 접고 단종과 사육신을 추모하며 포천에 은거하였다고 하는데,<sup>9)</sup> 실록의 기록으로는 그가 세조 12년(1466)까지 연일 현감을 지내고 있었으나 과거의 허물 때문에 파직된 사실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 기록을 끝으로 양사언의 직계 선조들이 중앙 관계에서 활동하였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양사언의 가문이 세조 대에 이르러 세거지인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양사언의 조부 양제달(楊梯達)은 선교랑을, 양사언의 아버지인 양희수(楊希洙)는 돈녕주부 등을 지냈다고 전한다. 양희수의 여러 아들 중 문화 유씨 소생인 양사언, 양사준(楊士俊, 1521~?), 양사기(楊士奇, 1531~1586) 삼형제가 문재(文才)로 이름을 널리 알리며, 미산삼소(眉山三蘇)에 비견되기도 하였다.

양사언의 행적은 용주(龍洲) 조경(趙綱, 1586~1669)이 지은 그의 <묘갈명>에 서술되어 있지만 그다지 상세하지 않다.<sup>11)</sup> 그러나 곳곳에 남아 있는 수많은 기록을 통해 봉래의 독보적인 행보와 당대 문인계에 끼쳤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양사언을 둘러싼 향간의 화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단연 우세한 것은 양사언이 안평대군, 김구, 한호와 함께 조선 4대 명필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특히 양사언의 서체는 기이하여 눈길을 끌기로 유명한데, 산속에 들어가 등나무와 칩덩굴을 보고 필력의 신통함을 얻었다고

희는 이 일이 풍문(風聞)에서 나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救)하였다.” 『문종실록』 2년(1452) 2월 8일,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

8) 『세종실록』 30년(1448) 1월 2일, 「장물죄를 범했던 설유와 양치를 감사로 소속시키다」

9) 洪直弼, <兵使楊公傳 丙午>, 『梅山集』 51. 물론 해당 기록은 19세기에 간행된 문헌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세조실록』 12년(1466) 7월 14일, 「연일 현감 양치를 개차하다」

11) 양사언의 생애는 강혜선, 「양사언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홍순석, 『양사언의 생애와 시』,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1a에 자세하다.

알려져 있다.

둘째로는 금강산과 금수정 등 명승을 중심으로 한 그의 필적, 행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특히 그가 금강산 만폭동 넓은 바위에 새겨 둔 ‘봉래풍악 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은 금강산 유람의 필수적인 볼거리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를 보기 위해 금강산을 찾은 후대 문인들이 그 필적의 옹호한 기세를 칭송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를 탁본하여 소장하려는 사람들과<sup>12)</sup> 또 한편에 자신의 자취를 더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 때문에 후대에는 윤곽만 겨우 보전할 만큼 마모될 지경에 이르렀으니,<sup>13)</sup> 봉래의 여덟 글자가 불러일으킨 문화적 과급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봉래와 관련하여 금강산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금수정이다. 금수정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정자로, 척약재(楊若齋) 김구용(金九容, 1338~1384)의 둘째 아들인 김명리(金明理, 1368~1438)가 영평천가에 세운 것이다. 정자 주변의 빼어난 절경과 함께 근처 바위 곳곳에 한호, 양사언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것이 금수정만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다. 또한 포천 영평현은 서울에서 금강산과 함경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을 유람하거나 함경도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오가는 과정에

12) “이곳에 양봉래(楊蓬萊)가 쓴 글씨를 돌에 새긴 것이 있기에 하인을 시켜서 찍어 오게 하였는데, 먹이 번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찍어 오니, 전에 비해 자못 정밀하므로 세 축(軸)을 만들어 올립니다. 저의 생각으로 논하건대 세상에 드문 기이한 볼거리라고 이를 만합니다.” 南九萬, <上叔父 癸丑十一月十三日> 『藥泉集』.

13) “(...)전년에 풍악(楓嶽)을 유람하면서 가서 보니, 만폭동(萬瀑洞)에 누워 있는 돌 위에 새겨져 있는데 급류에 씻겨 마멸된데다가 관장(官長)과 유람객들이 썰 새 없이 탁본하여 몇 년 못가 곧 흐려지게 되고 중들이 제멋대로 쪼아 새긴 것이 이미 백여 차례 되풀이하여 다만 윤곽만 방불할 뿐이요, 그 신기(神氣)와 정채는 죽은 지 이미 오래였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단지 봉래의 글씨라는 것만 듣고 모두 ‘금강산과 같이 높다.’ 하는 것은 결만 알고 하는 소리이다.” 李青峯, 『宣祖朝故事本末』, 『燃藜室記述』 18.

서 종종 금수정을 유람하곤 하였다. 이처럼 금수정과 금강산은 여정 상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사언이 새겨 둔 암각문이 남겨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 사이에서 양사언의 풍류 행적은 더욱 널리 회자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양사언의 출신에 관한 이야기로, 그는 서얼 출신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기록에서는 서얼 출신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양사언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는 영·정조 실록과 같은 후대의 기록이고, 양사언이 살았던 당대의 기록이나 행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봉래를 비롯한 양씨 삼형제가 모두 관직에 진출하였던 사실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적서차별이 조선 후기만큼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sup>14)</sup> 그러나 당대의 정치·사회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사언이 살았던 때는 이미 서얼에 대한 처우가 가혹했던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sup>15)</sup> 물론 그가 서얼이었다는 것이 족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sup>16)</sup> 그의 출신이 양사언의 정치 생활에 장애가 된 사례도 딱히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사언의 출신에 관한 이야기인 「양사언 모친 설화」가 세상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은,<sup>17)</sup> 그가 적자이나 서자이나 하는 문

14) 강혜선(2000), 앞의 논문, 376쪽.

15) 왕자의 난 이후 서얼 출신인 정도전이 실세하고 나서, ‘서얼금고법’이 명문화되어 공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서얼 출신으로 재상을 역임하면서 사회로 정국을 뒤흔든 유자광(?~1512)이 죽은 뒤에 서얼 차별은 더욱 엄격해졌다. 해당 내용은 정경민, 「양사언 어머니 설화 연구」, 『돈암어문학』 30, 돈암어문학회, 2016, 140쪽.

16) 족보와 「묘갈명」에서는 양사언의 아버지인 양희수에게 파평 윤씨, 진천 송씨, 문화 유씨 세 사람의 아내가 있었고, 양사언이 유위(柳滄)의 딸인 문화 유씨의 소생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위라는 인물의 행적, 더 나아가 존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국조방목』에 기록된 양사언 급제 정보에는 그의 외가가 송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머니의 존재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내용은 홍순석, 『양사언 문학 연구』,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1b, 18~21쪽, 정출헌·김준형, 「『東稗洛誦』의 전대 이야기 수용 양상 -전대 문헌 수재 「朴震憲」과 「楊士彦 모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7, 동양한문학회, 2020, 308~310쪽에 자세하다.

제가 봉래의 행보와 더불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sup>18)</sup>

당시 양사언의 입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를 살펴보자. 42세(1558)에 그는 의금부에서 추국당하게 되는데, 이때의 추국은 과거 시험 부정행위 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시험관이었던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이 신사헌(愼思獻, 1520~?)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발각되어 논란이 일었다.<sup>19)</sup> 신사헌은 중종의 장인이자 좌의정을 지내기도 했던 신수근(愼守勤, 1450~1506)의 손자이다. 이때 양사언과 함께 추국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은 이사성(李師聖, 1525~1571), 이광복(李光福?~?), 박충간(朴忠侃, ?~1601) 등으로<sup>20)</sup> 이들은 가문이 현달하지 못해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벼슬길이 막혀 있지만, 뛰어난 문재를 가졌던 인물들로 추정된다.<sup>21)</sup> 즉, 신사헌의 답안을 대리 작성했을 법한 인물을 가려서 추국한

17) 『양사언 모친』 설화는 거의 모든 야담집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야담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이다.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개별 작품마다 차이가 크지 않으나, 후반부는 양사언 모친이 양사언 형제가 서자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 양희수의 장례에 목을 찢러 자결하였다는 유형(이하 자결형)과, 양사언 모친이 지락을 써서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아 양사언 삼형제를 출세시키는 유형(이하 지락형)으로 나뉜다.

18) 그간 양사언 모친 설화의 최고본은 『東稗洛誦』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바, 그 초기적 형태는 『동패낙송』보다 100여년 앞선 『撫松小說』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송소설』 수록본은 널리 알려진 ‘자결형’에 해당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로부터 양사언 모친 설화가 후대에 윤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송소설』이 南人들의 黨論書라는 점, 실제로 양사언은 훗날 남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과 친연성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사언 모친 설화의 내용은 아주 근거 없는 허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한 내용은 정출한·김준형(2020), 앞의 논문 참고.

19) 『명종실록』 24, 13년 12월 6일 기사 참조.

20) 『명종실록』 24, 13년 12월 8일 기사 참조.

21) 우선 이사성(李師聖)의 경우, 성품이 강직하고 자질이 영특하여 일찍부터 문예를 성취하였으나, 사관원 헌납이었던 아버지 이치(李致)가 을사사화를 일으킨 이기(李芑)와 외척 윤원형(尹元衡)을 비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중앙 관계에서 밀려나게 된 사언이 있다. 이광복(李光福)의 행적은 남아 있지 않는데, 다만 학행이 높아서 조정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 양사언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의 사회적 입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사례가 반드시 양사언이 서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의 가문은 증조부 이래로 포천에 은거하는 생활을 하였고 이미 관료계에서 떨어져 있었다. 다만 이상의 정황을 살폈을 때, 그가 종종 외직을 자청하며 유람 생활을 통해 탈속적인 취향을 즐겼던 것은 어느 정도는 그의 성미와 풍류벽에 기인하지만, 그 근거에는 신분적 한계를 의식한 봉래의 처세관의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양사언의 불분명한 신분 조건은 그의 비범한 예술가적 자질과 금강산, 금수정 등 명승에서의 행보, 유선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 세계 등과 맞물려 양사언이 수많은 문인으로부터 ‘지상에 내려온 신선’이라는 찬사와 함께 유명세를 얻었던 데에 일정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그가 사후에도 오래도록 문학·예술의 장에 호명되어 신선, 풍류의 대명사로 ‘기억’되었던 정황과도 무관하지 않다.<sup>22)</sup> 앞서 살펴본 시조 ‘태산의 높다하되~’의 경우 원래는 작자 미상 또는 율곡 이이의 작품으로 전승되다가 『가곡원류』 국악원본 이래로 줄지어 양사언의 작품으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더 널리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23)</sup>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호하면서도 탈속적인 이미지, 사대부적 삶 이면에 놓인 자유로운 예인으로서의 면모가 후대인들의 기억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

의 천거로 관직을 했었던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과 교유가 있어 시를 수창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박충간(朴忠侃)은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을 하였던 인물이나 1589년 정여립의 모반을 고발한 공으로 형조참판으로 승진되었던 인물이다. 이상의 내용은 李植, 『司饗院正李公墓碣銘』, 『澤堂集』 10; (朴光玉, 『顛之李光福詩』, 『懷齋集』 1; 한민족문화대백과 「박충간」 항목 등을 참조.

22) 후대에 기록 또는 구비 전승 곳곳에 봉래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는 언급이 종종 등장한다.

23) 김홍규 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작품 번호 5771.1.

## 2.2. 문학적 경향: 초월적 상상력과 낭만성

양사언이 남긴 작품들은 『봉래시집』과 그의 자필 첩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280수의 가량의 한시와 10여 편의 한문 산문 작품, 그리고 국문가사 <미인별곡>이 그의 소작으로 남아 있다. 양사언의 작품은 16·17세기 한시의 경향을 투영하면서도, 유선적이고 낭만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24)</sup>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선조조는 ‘목릉성세(穆陵盛世)’로 일컬어질 만큼 최고의 문장가들이 활약하였던 시기이다. 이때의 시단에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새롭게 당시풍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사변적이고 도학적인 기존의 송시 보다, 진솔한 인간 감정의 표현에 힘쓴 당시가 독자들의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풍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는 복고주의, 주정성, 낭만성 등은 그동안 지나치게 난해한 용사와 기계적인 수사에 식상함을 느꼈던 문인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sup>25)</sup>

양사언의 작품 또한 이러한 문학사적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작품은 선계를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속세와 이득히 떨어진 호탕한 정서와 취흥 등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 구천에서 학 타고 생활 불며 신선이 주옥 누각에 내려와

	九霄笙鶴下珠樓
만리에 걸친 맑은 하늘 맑은 기운을 거두어 모았네	萬里空明灑氣收
푸른 바다의 물이 은하수에서부터 떨어졌고	靑海水從銀漢落
흰 구름은 하늘로 들어가 백옥산처럼 감도네	白雲天入玉山浮
긴긴 봄에 복사꽃 오얏꽃은 모두 경옥의 잎새요	長春桃李皆瓊葉
천년 묵은 키 큰 소나무는 죄다 머리가 검구나	千歲喬松盡黑頭

24) 양사언 시의 특징 및 경향은 강혜선(2000), 앞의 논문, 홍순석(2001b), 앞의 책, 100~171쪽 등에 자세하다.

25) 정민,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198~222쪽.

신선의 자하주 가득 부어 한바탕 취하여 머무나니 滿酌紫霞留一醉  
 세간에서 한가로운 시름을 일으킬 곳이 없다네 世間無地起閑愁  
 <萬景臺><sup>26)</sup>

위 작품은 허균의 『국조시산』에 선별되기도 한 작품으로, 금강산 만경대에서 지은 작품이다.<sup>27)</sup> 작가는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장소의 면면을 모두 신선 세계의 그것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선 시적 화자는 자신의 위치를 ‘구천에서 학 타고 생황 불며’ 하늘에서 누각으로 내려온 신선과 동일시하고 있다. 신선의 시선으로 누각 위에 서서 바라본 풍경은 맑은 기운이 가득하고, 푸른 바다의 물은 마치 은하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윽하다. 이어서 지상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겨보니, 백옥으로 빛은 산과 같이 수려하고 드높은 구름이 노닐고 있고, 천상의 아름다운 구슬처럼 꽃잎들이 반짝이며 흩어지는데,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소나무는 더없이 푸르기만 하다. 인간 세계의 좋은 경치는 이미 아득히 뛰어 넘은 듯한 이곳에서, 화자는 신선의 술이라는 자하주를 가득 부어 더없이 고양된 흥에 젖어 든다. 이와 같은 선계의 절경 속에서 ‘한가로운 시름’ 따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것이다. 이 작품은 허균으로부터 “글자마다 연하이니, 선가의 신품이다[字字煙霞 仙家神品]” 라는 평을 받은 작품으로, 화려한 이미지와 드넓은 시각적 스케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초속적인 삶의 태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양사언은 자신이 머문 공간을 선계로, 그리고 스스로를 신선에 견주어 그의 유람 및 풍류를 시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선취가 강한 그의 시는 모두 ‘유선(遊仙)’ 또는 ‘기몽(記夢)’과 같은 제명이나 형식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꿈속이나 상상 속에서 본 선경을 형상화한 일반적인 유선

26) 허경찬·구지현 옮김, 『國朝詩刪』, 보고사, 2022, 404쪽.

27) 봉래시집에는 <淸礪亭>으로 되어있다.

시와는 구별된다. 또한 그의 유선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계에 대조되는 하계, 즉 인간 세상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양사언의 작품에는 정치 현실에서의 좌절이나 패배, 신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소외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sup>28)</sup> 이처럼 양사언을 대표하는 작품들에 나타나는 선계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유선시와는 달리 현실의 상황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선 세계 그 자체의 풍경과 흥취에 머무르기 때문에, 감상자로 하여금 시인의 창작 의도보다는 시어 자체가 이루는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분위기에 도취되게끔 만든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에는 작가 개인의 내면 풍경이나 고뇌, 번민 등이 존재하지 않을까?

- |                                                                                                                                                                                                                    |                                                                                                                        |
|--------------------------------------------------------------------------------------------------------------------------------------------------------------------------------------------------------------------|------------------------------------------------------------------------------------------------------------------------|
| (ㄹ) 그리운 님 상포에 떨어져 있는데<br>하룻밤에 가을 바람이 생겼네<br>그리워도 보지 못하고<br>홀로 어지러운 산중에 섰네                                                                                                                                          | <u>美人</u> 隔湘浦<br>一夕生秋風<br>思之不可見<br>獨立亂山中<br><有懷>                                                                       |
| (ㄷ) 내 마음을 밝은 달에 비하니<br>천지는 두루 비어 있네<br>어찌하여 증성(曾城)은 막혀<br>금은의 궁궐을 비치지 못하나<br>미인은 옥루에 깊이 숨어있으니<br>청년들이 누가 함께 나란히 서겠는가<br>청춘의 모습은 물처럼 쉬 흐르고<br>가을날 귀밑머리의 눈 녹이기 어렵네<br>만나면 다시 만나기를 원하니<br>꼭 장생(長生)의 말을 주고 싶네 (강조는 필자) | 我心比郎月<br>天地遍虛徹<br>胡乃隔曾城<br>不照金銀闕<br><u>美人</u> 闕玉樓<br>青年誰與列<br>春容易流水<br>秋髮難消雪<br>邂逅願相逢<br>倘授長生設<br><朗月吟> <sup>29)</sup> |

28) 강혜선(2000), 앞의 논문, 391~392쪽.

잘 알려져 있듯, 그는 곳곳을 유람하는 가운데 사대부, 방외인, 승려 등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를 맺고 수많은 시를 주고받았다.<sup>30)</sup> 이에 봉래의 작품 중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작품이 적잖이 보이는데, 작품 속에 구체적인 인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대개 교유 과정 또는 그 여파로 창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 후술할 <미인별곡>, <미인곡> 등에 나타나는 미인의 형상 및 제재가 이상의 작품들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ㄴ)에는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을 미인으로 명명하면서, 그가 상포(湘浦) 즉 상수(湘水)가에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수에 몸을 던져 자결한 초나라의 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작중 화자가 그리워하는 ‘미인’은 아마도 조정에서 밀려나 변방에 있거나 시류에서 벗어난 은자의 삶을 자처한 인물이 아닐까 한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계절은 가을이 되었고 작중 화자의 그리움은 더해가지만, 다시 만날 기약은 아득한 상황을 담담히 묘사한 위 작품은 쓸쓸함의 정서가 주를 이룬다.

(ㄷ)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밝은 달에 빚대어 그리움의 정조를 강조한 작품이다. 화자의 그리운 마음은 높은 달이 되어 저 멀리 님이 있는 곳을 비추고자 하나, ‘천지는 두루 비어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달은 님이 있을 법한 신선 세계를 비추어 보지만 곤륜산에 있다고 하는 증성에 가로막혀 그 빛이 닿을 수 없다. 여기에서 미인으로 표현된 님은 옥루 깊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이에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를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을 따름이다. 이하 제시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어느덧 늙어버린 화자 자신의 용모와 처지를 잘 표현

29) 이상의 한시 두 편은 홍순석(2001a), 앞의 책에 완역된 『봉래시집』의 번역을 따르되 일부 어구를 수정하였다.

30) 양사언의 교유 관계는 홍순석(2001a), 앞의 책, 32~44쪽에 자세하다.

하고 있다. 작품 마지막에 ‘만나면 또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아직 만나지도 못한 님이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또다시 만날 날을 반드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즉 화자에게 절대적인 추앙의 대상인 님을 향한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부디 오래 살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으로 작품을 맺고 있다.

이처럼 양사언이 문면에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고뇌나 번민을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몇몇 작품에는 그리운 대상과의 합일을 꿈꾸는 뜻이 여실히 담겨 있고 이는 작품 (ㄷ)과 같이 종종 선계 지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리움의 대상인 ‘미인’은 과연 누구일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유 관계에서 맺어진 누군가, 즉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지음을 뜻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가 특히 각별히 교유하였던 청허(淸虛) 휴정(休靜, 1520~1604)과의 교유 시에서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ㄷ) 산은 푸르디푸른데 바다는 아득하기만 하고	山蒼蒼海茫茫
구름은 넓디넓은데 비는 주룩주룩 내리네	雲浩浩雨浪浪
어느 곳에 미인이 있는가	何處美人
하늘 끝만 바라보네 (강조는 필자)	在天一方
	<寄蓬萊子 二> <sup>31)</sup>

봉래가 교유를 맺었던 인물 중에서도 청허 선사는 유달리 돈독했던 인물이다. 봉래가 청허에게 보내는 편지 2통이 『봉래시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양사언이 청허의 거처를 자신이 있는 봉래산으로 옮겨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9년 전부터 자신이 있는 봉래산에 옮겨 와 머물 것을 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점, 그리고 청허가 끝내 봉래산으로 오

31) 김진역·배규범 역주, 『서산대사 휴정 시집』, 민속원, 2002, 66~67쪽.

지 않겠다면 억지로 끌고 오기라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sup>32)</sup> 청허와 반드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sup>33)</sup> 등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교우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㉔)은 청허가 봉래에게 보낸 시 2수 중에 한 편으로, 그는 봉래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봉래를 ‘미인’으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봉래의 작품에 나타나는 미인의 함의 또한 자신을 알아주는 절친한 존재일 확률이 가장 높다 하겠다.

물론 상기한 작품들 속의 미인이 말 그대로 아름다운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해석이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㉒)의 그리운 님이 계신 상포는 소상반죽 고사로 유명한 아황·여영을 암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고지순한 아내나 첩을 떠올리며 지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밖에 작품들, 그리고 사대부 일반의 문학적인 관습 등을 참작한다면 위와 같은 경향의 작품들을 모두 한 여성을 상정하고 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㉑)과 같은 작품에 나타나는 신선 세계에 깊이 간혀 있는 님과 그를 향한 절대적인 추앙의 태도는 후대 연군가사와 수사적 측면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달리 접근해 본다면, 인간이 문득 느끼는 고독과 그리움은 반드시 구체적인 실체를 상징하지 않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미인은 저 멀리 있어 가닿을 수

32) “텅 비고 푸른 동해 바다와 옥설이 영긴 봉래산은 청허대사가 우거하기에 마땅하거든 무슨 마귀가 막고 끌어당겨 9년 동안이나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략) 그대가 끝내 봉래산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몸을 일으켜 서쪽으로 가서 도사의 소매를 잡고 동쪽으로 올 것입니다.”

33) “청허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남쪽으로 갔으니 지난 해의 탄식은 지금까지도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략) 정신으로 교제하는 그리운 정은 푸른 하늘에 밝은 달 같습니다. 나는 비록 변방 고을의 수령에 매였으나, 쌀을 나누어주고 걷어들이는 일을 모두 마쳤으니, 새 달 사이에는 龜印을 버리고 蓬忽의 바닷가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청허가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餘生을 보내겠습니까?” 이상 편지 인용은 모두 홍순석 (2001b), 앞의 책, 49~50쪽.

없는 존재 및 상태를 향한 동경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정서로 환원되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봉래가 처했던 현실에서의 제약으로 인한 결핍이 그 근저에 작동하고 있다고 볼 여지 또한 있다.

봉래는 세속에서 벗어난 인물로 알려져 도가적이며 방외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사대부로서의 본분과 관습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40여 년간 내·외직을 두루 거치며 관직 생활을 유지했으며, 현실을 부정하면서 취흥으로 젖어 든다거나 신선술을 탐닉하지도 않았다.<sup>34)</sup> 또한 사대부의 시가 창작 및 문집 편찬의 관습을 보았을 때, 『봉래시집』은 봉래의 여러 시문 중에서도 나름의 선별을 거친 작품이므로, 그 안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남녀 간의 애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허균은 그의 시화집 『학산초담』, 『국조시산』 등에서 양사언의 시를 여러 차례 평하였는데, 그 평어는 대개 봉래 시의 신선 같은 풍채와 도인 같은 운치에는 그 어떤 내로라 하는 문인들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편으로는 불계(佛僞)와 비슷하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sup>35)</sup> 이처럼 양사언의 작품은 당시풍을 따르는 가운데 초속적인 세계관이 강조되면서도, 그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감각적인 어휘로 담고 있어 특유의 낭만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이하 국문 시가 <미인별곡> 및 <미인곡>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34) 봉래가 여타 방외인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과는 달리 사대부적 삶에 충실하였음은 강혜선(2000), 앞의 논문, 383쪽; 홍순석(2001b), 앞의 책, 52~53쪽에서 또한 이미 지적하였다.

35) 허경진·최재원 옮김, 『학산초담, 태각지, 해동야언별집, 상소문』, 보고사, 2022, 103~104쪽.

### 3. 楊士彦의 〈美人別曲〉 분석

양사언의 <미인별곡>은 총 30행의 비교적 짧은 가사이다. <미인별곡>은 양사언 자필 첩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총 14장 24면으로 되어 있다. 첩책의 가장 첫 작품은 허강(許樞, 1520~1592)의 국문 가사 <서호별곡>이며, 이어서 ‘포천산천(抱川山川)’이라는 제명 하에 총 11수의 한시가 등장한다.<sup>36)</sup> 이후 <사초(莎草)>, <설려(薛荔)> 두 작품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미인별곡>이 수록되어 있다. 또 <미인별곡>에 이어 6편의 한시 및 산문 작품들이 더 등장하는 것이 이 자료의 전부이다.<sup>37)</sup> 본 자료를 처음 소개한 김동욱의 고증에 따르면 이 자료는 『봉래시집』을 편찬하기 전에 있었던 초고일 가능성이 높는데, 같은 제목의 작품을 대조해 보면 침삭의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sup>38)</sup> 이상의 편제를 통해 알 수 있듯 본 자료는 봉래의 출신지이자 그가 관직 생활을 쉬고 있을 때 은거지로 삼았던 포천의 산천 곳곳에서 풍류를 즐기던 때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미인별곡> 역시 이때 지었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국문가사는 주로 노래로 향유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호별곡>에 악곡 표지가 있어서 가창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미인별곡> 또한 풍류 현장에서 노래를 위해 수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미인별곡>의 경우에는 고정된 악곡이 없이 즉흥적으로 노래로 불렀거나 악곡 표기가 생략된 듯하다. 풍류 공간에 가가(歌妓)들이 함께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기존 논의에서는 본 작품에 등장하는 ‘미인’을 형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별로서의 여성, 특히 기녀일 것으로 추측하였지만,<sup>39)</sup> 이하 작품을 섬세히 살펴보면 기왕의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36) 11수 모두 포천에 소재한 산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37) 자필 첩책의 편제는 김동욱(1975), 앞의 책, 200~202쪽에 자세하고, 홍순석(2001a), 앞의 책, 46쪽에도 표로 수록되어 있다.

38) 김동욱(1975), 위의 책, 202~203쪽.

- (ㄱ) 그대를 내모르랴 巫山の 神女로다  
 塵寰을 내이 너겨 놀 위하여 느려온다  
 양즈는 梨花一枝에 님 비치 절로 흘러드느 듯  
 白沙長江의 海棠春栢이 흐터디여 띄연느 듯  
 눈서븐 靑溪鶴 툇 道士이 靑鶴洞으로 느라드느 듯  
 식석흔 海東靑이 碧海로 다니는 듯  
 머리는 潮陽太守 南遷홀제 衡山구름 헤든느 듯  
 朱唇雪齒로 半 맛쌈 운느 양은  
 仙宮三色桃花 흐르밤 빗기운네 절로 띄여 가는 듯

위 단락은 작품의 서두이다. 1~2행이 전체 작품의 서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적 화자는 ‘그대를 내 모르겠느냐, 무산의 신녀로다’라고 하면서, 천상의 사람이 어찌하여 ‘속세를 내 것으로 여겨, 누구를 위하여 내려 왔는가?’라고 묻는다. 이어지는 구절은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의 구절이 미인을 형용하는 보편 어구에 기대고 있는 것 같지만 일부 표현이나 어휘는 여성을 묘사하는 것으로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우선 시적 화자가 묘사하는 미인의 얼굴은 이화 나무 한 가지에 달빛이 절로 흘러든 것처럼 은은하고 깨끗하며, 흰 모래가 깔린 긴 강변을 따라 피어난 해당화, 동백꽃처럼 화사하다. 이어서 눈썹은 마치 청계학을 탄 도사가 청학동으로 날아드는 듯하다고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씩씩한 매가 푸른 바다를 지나는 것 같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구름같이 풍성한 머리는 마치 조양태수 한유가 좌천되어 임소로 가는 도중, 형산의 구름을 헤치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 구절은 한유의 <형악묘에 참배하고 곧 산사에서 잔 뒤 문루로 시를 지으며(謁衡岳廟遂宿嶽寺題門樓)>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한유가 강릉으로 좌천되어 가는 길에 남악

39) 김동욱은 본 작품을 ‘일개 美人에게 바친 別曲’이라고 하며 ‘어느 歌妓에 대한 戲作으로도 보여진다’고 하였다. 김동욱(1975), 위의 책, 213쪽.

신의 사당을 참배하고 지은 것이다. 작품은 형산의 험준한 자연 풍경과 남악묘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평탄치 못한 벼슬살이의 고층과 냉담한 현실에 대한 실의, 원망 등이 깔려있다. 작품 서두에 한유의 어두운 마음을 대변하듯 구름이 잔뜩 끼어 산허리가 감추어져 있는 정경이 그려지는데,<sup>40)</sup> 인용문에서는 이처럼 몽게몽게 피어오른 구름을 미인의 풍성한 머리에 빗대었다 할 수 있다. 이어서 붉은 입술과 흰 이로 반쯤 미소를 띤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궁의 삼색 도화’라고 찬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형용하고 있으나, 이 중 특히 눈썹이나 풍성한 머리를 묘사한 부분은 다소 독특하다. 보통 눈썹의 경우 수려한 산세에 빗대어 가늘고 긴 모습, 섬세한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기 때문이다. 머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견으로는 쉽사리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든 묘사라고 할 수 있다.

- (ㄷ) 銀屏 소개 안잔는 양 月中姮娥 桂樹늘 지현는 듯  
 漢家 趙飛燕이 避風臺 속개 녀의 최고 안잔는 듯  
 솜 지여 宿痕을 계워 花冠이 正正 하니  
 明妓 胡塞에 漢宮이 어드메오  
 一曲 清商으로 가는 길홀 니전는 듯  
 林邛道士를 太眞이 만나이서  
 離宮 告別 문내 무려 허튼 시름 푸먼는 듯

40) 五岳祭秩皆三公 오악은 제례가 모두 삼공(三公)의 등급이니  
 四方環鎮當山中 사방을 빙 둘러싸고 송산이 중앙에 있다  
 火維地荒足妖怪 남방은 땅이 황량하고 요괴가 많으니  
 天假神柄專其雄 하늘이 산신으로 하여금 웅장한 산을 독점케 하다  
 噴云泄霧藏半腹 뱉어져 나온 구름과 새나온 안개가 산허리 감추고  
 雖有絕頂誰能窮 꼭대기 있다 하나 누가 끝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략...)  
 韓愈, <謁衡岳廟遂宿嶽寺題門樓>. 해당 번역은 손수·장섭 엮음, 신동준 옮김, 『唐詩三百首』, 인간사랑, 2021, 221~222쪽.

綠衣黃裳을 半마삼 헤틴 양인

陶淵明 栗里三逕의 松菊이 헤드린는 듯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미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중국 고사 속 미인들에 비견하여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 성제의 후궁이었던 조비연이 바람에 쓰러 질까 염려하여 지었다는 피풍대 이야기와, 한나라의 궁녀였다가 흉노로 시집간 왕소군의 고사, 죽은 양귀비가 임공도사를 만나 현종이 자신을 그리워하는 기별을 전해 들으며 시름을 품는다는 내용 등, 모두 중국 역대 미녀들의 연약하고도 애잔한 모습을 장면화하여 미인에 빗대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시 당시풍에서 지향하였던 표현법 및 정서를 띠고 있으며, 고사 수용의 바탕도 이백의 <왕소군>이나 백거이의 <장한가> 등 당나라 시인들의 대표작이다. 이어지는 구절은 녹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로 묘사되는 여성의 옷이 반쯤 헤쳐져 있는 모습을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등장하는 ‘율리삼경(栗里三逕)’에 비유하였다. 역시나 은일 고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인의 농염한 자태를 묘사하는 데에 쓰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부분이라 하겠다.

(c) 岐陽 絲桐 소개 놀애 소리는

杜拾遺 曲江 暮春에 暖日平蕪에 緩緩行 ㅎ는 듯

天台山 緣蘿月的 苗聲淸猿이 ■구름 소개 흐르 ㅎ는 듯

춤츠는 양은 未央宮 늘의던 버드리 자다가 굽니는 듯

西施의 姑蘇臺上의 興 계워 노니는 듯

香山居士이 玉蘭의 지혀이서 弱質을 나오혀는 양은

林處士 西湖雪夜의 梅花가지 이어는 듯

嬌態를 계워 百砂閣畔의 오마가마 ㅎ는양은

瑤臺에 宴罷하고 梁王宮女 느리는 듯

七月七日 烏鵲橋의 躑躅更躑躅 織女星이론 듯

謝安石 携妓東山을 블라말라 ㅎ노라

후반부와 결사로 갈수록 시구가 암시하는 시적 대상의 성별은 점점 그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상의 인용문은 작품의 후반부와 결사를 포함하는 단락이다. 이 단락에서는 미인이 연주하는 음악과 춤을 묘사하였는데, 전 단락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게, 미인을 빗대어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우선 기양(岐陽)은 송나라 소식의 희우정이 있던 곳으로, 소식의 풍류가 도도한 기양 땅의 거문고 반주로 이루어진 노래 소리는 마치 두보가 곡강 가에서 늦봄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느릿느릿 걷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두보의 <곡강><sup>41)</sup>은 번영했던 조국이 안사의 난으로 엉망이 되어 옛 모습을 잃은 때에, 그저 술에 취해 곡강 가를 헤매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황과 벼슬길에서의 실의, 귀은하고자 하는 심경 등을 노래한 작품이며, 이어지는 천태산 푸른빛 덩굴에 걸린 달빛이 비치는 무덤 가 원숭이의 떼음 소리 또한 비극적인 정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녹라월이나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대개는 은자의 은거지를 수식하는 어휘로 종종 쓰인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 시의 주인공이자 대상은 어쩌면 여성으로 한정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어서 나타나는 춤의 모습은 고소대 위 서시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향산거사 백거이가 옥 난간을 짚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언급된다. 이는 아마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듯한데, 화자는 이를 대표적인 은일 형상 중 하나인 임포의 매화 가지가 늘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수식하였다. 특이한 것은 원래 ‘일대인물(一代人物)’로 적혀 있던 것을 목으로 칠하여 ‘향산거사(香山居士)’라는 시어로 교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작자가 이 자리에 어떤 인물을 배치할지 고심한 끝에 향산거사를 골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은일 고시는 이 작품이 단순히 한 미인을 대상으로

41) <曲江二首>, <曲江對酒>, <曲江對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정하여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그가 포천에서 은일할 때 경험하고 느꼈던 장면과 정서를 당시풍의 낭만적인 표현 및 정조를 활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안의 휴기동산(携妓東山) 고사는 동진의 명재상 사안(謝安)이 동산에 은거하며 기생들과 풍류를 즐겼다는 고사인데, 것처럼 유명한 사안의 풍류를 지금 이곳에서 볼 것 같다는 것은 분명히 시적 화자가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사대부 남성의 풍류를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포천 은일 시절의 감회와 신선 취향 등을 당시풍의 낭만적인 표현을 빌려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생애 행적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어 확정은 어렵지만, 그 시기는 그가 함흥 부사로 재임하다가 병으로 귀향하였던 1555년(39세)부터 1560(44세) 12월 다시 평창 군수로 도임하기까지, 그사이 시기로 추정된다. 이때 봉래는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로 추국도 받기도 하고, 다시 외직이나마 관료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1555년 그가 관직을 내려놓고 귀향하게 된 계기 또한 병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관직을 잃었을 확률이 높아,<sup>42)</sup> 정치적 입지의 측면에서 분명 좋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단순히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렸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다지 순탄치 않은 자신의 상황을 투영함과 동시에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그리며, 또는 서러운 사연을 가진 묵객과 미인들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창작한 작품이 아닐까 한다. 다만 풍류 현장에서 소용되었던 만큼 시상의 전개가 다소 난잡하고 구조상 기승전결이 분명치 않으며, 조어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유미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하 <미인곡>은 이처럼 풍류적인 기운이

42) <묘갈명>의 기록에는 그가 병 때문에 직책을 그만두고 귀향했다고 되어 있지만, 『봉래시집』에 수록된 한시에는 그가 ‘직첩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표현한 흔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순석(2001b), 앞의 책, 26쪽.

농후한 <미인별곡>과는 달리 작가의 의식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㉔) 미인이 푸른빛 나는 당 위에 높직이 앉으니      美人端坐光碧之高堂  
 옥 같은 얼굴 홀로 뛰어나 견줄 사람이 없네      玉容絕世而獨立  
 미인이 손으로 용문산 오동 거문고를 잡아      美人手揮龍門之孤桐  
 홀로 양춘백설곡을 연주하니      獨奏陽春白雪曲  
 곡조는 고상하여 천년 되어도 아는 이 적네      調高千載少知音  
 고운 자색은 세상에 없어 다시 얻기 어려운데      秀色曠世難再得  
 나를 위해 봉황곡을 타니      爲我彈鳳凰  
 온갖 새들이 소리 삼키고 울지 못하네      百鳥吞聲廢啾唧  
 다시금 용과 범의 소리를 타니      再鼓龍虎吟  
 바람을 흔들어 바다를 말고 구름이 하늘에서 솟네      震風卷海雲涌碧  
 은은한 곡조로 잠시 변화더니 겨울나무에 꽃이 피고      謾調乍變樹冬華  
 羽商 곡조를 어지럽게 타니 여름 하늘에 눈이 날리네      羽商亂獲天夏雪  
 얼근해지더니 갑자기 천지에 봄이 되돌아오는 듯      陶然忽回天地春  
 맑은 음악이 육률에 조화되니      戛戛韶鈞諧六律  
 어리석은 사람 화를 풀고 비천한 자 맑아지네      蚩氓嗤解鄙夫清  
 중니께서 들으시면 고기 맛도 잊으리라      象尼有聞應不肉  
 어찌 이렇게 상제를 위하고 신을 위하게 되었는지      胡然爲帝胡爲神  
 내가 한 번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      使我一見驪斷絕  
 창자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네      臘斷絕斷復續  
 백년은 삼만 육천일에      百年三萬六千日  
 날마다 서로 따르며 멀리 이별하지 않으리라      日日相隨無遠別  
 옛 사람 말하길, 뜻이 맞으면 즐겁다 했으니      古人亦有言得意則可樂  
 구름 병풍과 비단 휘장 치고 밤마다 함께 자며      雲屏錦帳夜同寢  
 쌀밥에 맛있는 반찬 아침에 함께 먹으며      瓊康琅玕朝共食  
 난초와 두약을 함께 차니 향기가 스며드네      紐蘭杜蘅芳馨  
 앉아서 푸른 하늘에 명하여 해를 머물게 하니      坐令青天駐白日



한자리에서 잠을 잔다는 것 등은 본 작품이 애정의 대상인 여성을 향한 발화로 보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곳곳에 보이는 유가적인 음악관이나 난초와 두약과 같은 은일자를 상징하는 시어 등은 이 작품에서 미인이 반드시 남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유추하게 한다. 매일 따르며 같이 잠들고 같이 아침을 먹는 것은 옛 선비들이 지음을 만난 기쁨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작품을 한 자리에 놓고 보았을 때, 양사언의 <미인별곡>이 한 여성에 대한 애정과 풍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작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살핀 탓이 아닌가 한다. 그보다는 미인의 이미지를 통해 하면서 미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포천에서의 은일 생활을 양사언 특유의 초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낭만적으로 형상화한 것에 가깝다. 즉, 그의 교유 시와 문학적 경향 등을 포괄하여 살폈을 때 작중 미인이라는 존재는 봉래 자기 자신, 또는 봉래가 은거할 당시 그와 가까이 교유하였던 절친한 누군가를 의미화한 것이 아닐까 한다.

#### 4. 나가며 : 조선 전기 시가 문학사에서 <미인별곡>의 위치

결론적으로 양사언의 <미인별곡>은 그 창작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한 미인을 노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선 전기 사대부의 전통적인 가사 창작 방식 중 하나로 접근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본 작품은 유행하던 당시의 풍정을 활용하여, 미인에 빗대서 작가 자신의 신선적인 풍류와 은거 생활의 흥취를 노래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작품은 국문 시가라는 점에서 당대에 노래로 불렸을 것이고, 기녀를 동반한 모임 자리에서 가창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여서 종래의 해석이 아주 부정될 것은 아니다. 다만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여러 은일

고사들과,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묘사라고 하기에는 다소 혼종적인 측면이 있는 수식 등은 이 작품이 어떤 고정된 청자나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양사언의 <미인곡>을 비롯한 여타 한시들을 살펴 보아도, 봉래는 당시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작가이기에, 이 작품 또한 당대 사대부 문학의 변화한 풍정과 더불어 사대부적 미의식을 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본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또한 정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 작품을 애정가사의 효시작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정철의 작품에 비해서는 한참 뒤쳐지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던 것은 <미인별곡>을 지나치게 남녀관계 중심으로 평면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후대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의 미인이 군주를 의미하는 것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미인 형상의 혼종적인 부분을 문학사적 맥락에서 함께 놓고 본다면, 정철의 작품보다 앞선 작품 중에 시적 형상으로 미인의 용례를 확장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미인별곡>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전시기에 나타나는 여성 형상의 외연을 조금 더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연구사적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이 밖에도 봉래와 송강 모두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이 강했고 이를 문학으로 표출하였다는 점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본격적인 비교 작업을 거쳐야겠지만 두 인물의 문학적 기질, 즉 지상과 천상의 경계를 흐리는 모호함으로부터 비롯된 초월성과 낭만성은 어쩐지 닮은 구석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봉래 양사언은 강호가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조선 전기 사대부 국문시가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국면을 예비하고 있었던 작가로서, 정철과 그 이전 시기의 작가들을 잇는 위치에서 재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김진역·배규범 역주, 『서산대사 휴정 시집』, 민속원, 2002, 1~369쪽.
- 정민,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189~222쪽.
- 강혜선, 「양사언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371~403쪽.
- 김동욱, 「허강의 「西湖別曲」과 楊士彦의 「美人別曲」」, 『韓國歌謠의 研究 續』, 선명문화사, 1975, 1~390쪽.
- 김팔남, 「연정가사의 형성시기와 작자층」, 『어문연구』 제30집, 어문연구학회, 1998, 139~155쪽.
- 김홍규 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1386쪽.
- 박영주, 「지상에 머문 신선, 봉래 양사언」, 『오늘의 가사문학』 7, 고요아침, 2015, 57~72쪽.
- 성호경, 「조선 전기 문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 『고전문학연구』 61, 한국고전문학회, 2022, 7~35쪽.
- 손수·장섭 엮음, 신동준 옮김, 『唐詩三百首』, 인간사랑, 2021, 1~795쪽.
- 정경민, 「양사언 어머니 설화 연구」, 『돈암어문학』 30, 돈암어문학회, 2016, 125~151쪽.
- 정출현·김준형, 「『東稗洛誦』의 전대 이야기 수용 양상 - 전대 문헌 수재 「朴震憲」과 「楊士彦 모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7, 동양한문학회, 2020, 287~321쪽.
- 정홍모, 「포천 <金水亭>을 중심으로 한 누정문학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1,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혁신연구소, 2015, 201~236쪽.
- 허경진·구지현 옮김, 『國朝詩刪』, 보고서, 2022, 1~654쪽.
- 허경진·최재원 옮김, 『학산초담, 태각지, 해동야언별집, 상소문』, 보고서, 2022, 1~298쪽.
- 홍순석, 『양사언의 생애와 시』,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1a, 1~407쪽.
- \_\_\_\_\_, 『양사언의 문학연구』,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1b, 1~395쪽.

ABSTRACT

Aesthetic Imagination and Romanticism  
in Joseon Dynasty Sadaebu Kasa  
-A Study of Bongnae Yang Sa-eon's *Minbyeolgok*

Yoon, Jia

Bongnae Yang Sa-eon, a prominent figure in 16th-17th century literature, left a lasting legacy. This study examines his position in literary history, focusing on his Korean Kasa, *Minbyeolgok*

While details of his life are scarce, anecdotes reveal his activities and the memories surrounding them. He was a renowned calligrapher, known for his travels to scenic spots, which earned him recognition among contemporary scholars. The ambiguity surrounding his social status, coupled with his artistic talent and works imbued with transcendentalism, likely contributed to his fame as a “celestial being.”

His Chinese poetry reflects 16th and 17th century trends, characterized by a strong transcendental and romantic tone. This tendency is also applicable to understanding his Korean Kasa, *Minbyeolgok*.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Minbyeolgok* as a tribute to a beautiful woman requires revision. The sudden appearance of hermitage allusions and the hybrid nature of various modifiers suggest alternative interpretations. Ultimately, this work expresses the sentiments of his reclusive days and his penchant for the celestial, using romantic expressions of the time. It reflects his own difficult circumstances while longing for understanding, or perhaps it was created by comparing himself to sorrowful scholars and beauties. *Minbyeolgok* can be understood as an example of the expanded use of the beauty trope as a poetic figure in works predating Jeong Cheol's. This has significance in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female figures in classical poetry.

Furthermore, the literary dispositions of Bongnae (Yang Sa-eon) and

Songgang (Jeong Cheol), namely the transcendence and romanticism stemming from the ambiguity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earthly and the celestial, seem somewhat similar. In this light, Bongnae Yang Sa-eon can be reevaluated as a writer who paved the way for a new phase in the Korean Kasa of the Joseon Dynasty's literati. He can be seen as a bridge between Jeong Cheol and earlier writers.

**Key Words** *Minbyeolgok*, Bongnae Yang Sa-eon, Joseon Dynasty Kasa, Literati Kasa, Female Figure

논문투고일: 2024.07.21.

심사완료일: 2024.08.05.

게재확정일: 2024.08.08.